統一新羅時代 金屬工藝

—香垸 金鼓 銅鏡과 一般金屬工藝品을 中心하여—

李 浩 官

統一新羅時代의 金屬工藝關係는 佛教關係遺物인 金銅佛像、佛具舍利藏置 等을 제외한 나머지 金屬工藝品은 現在까지 多量으로 出土되거나 完全한 遺物로서 遺存되어 오는 例는 그렇게 흔하지 않아 전반적이고도 구체적인 內容으로 當代의 金屬工藝 藝術을 樣式的으로나 形態的으로 變遷과정을 究明하고 整理하는데는 무리가 있다고 보며 또한 완벽하게 究明정리된 적이 없다고 본다。

그러나 現在 遺存되어 傳하여지는 적은 수의 遺物을 中心하여 統一期 당시의 공예기술의 측정과 양식형태상의 특징을 대략 살펴보는데 주 목적을 두고 소개하고자 한다。

통일신라시대의 一般的인 金屬工藝關係는 古墳出土品과 기타 遺蹟址에서 出土수습된 遺物 以外에 佛教관계의 梵鍾 金銅佛像、佛具 舍利藏置 等의 遺物이 主宗을 이루고 있다。

이 中에서 古墳과 遺蹟址 出土品 一部와 佛具類中 香垸 金鼓等 몇점 안되는 것을 소개하여 보면서 또한 現在까지 出土되어 소개된 것들을 보면、

① 古墳出土 유물로서는

울릉도 天府洞古墳에서 出土된 鐵製도끼 一개와 장신구류、금동제 과대수식과 銅鏡

芬皇寺 石塔內에서 出土된 舍利函에서 銅裝飾과 金銀針筒과 가위。

慶州 忠孝里 第五號墳에서 出土된 鐵鏃三七個

慶州 忠孝里 第九號墳 出土의 有蓋靑銅甁

慶州 雙床塚 石室古墳의 石扇에 달린 靑銅鬼面의 손잡이를 비롯하여

黃海道 平山面 出土의 器皿

忠南 扶餘의 扶蘇山에서 出土된 一括遺物 등이 있으며、

② 一般金屬工藝品으로는

慶州 雁鴨池에서 出土된 多量의 일반 금속공예품을 들수있겠다。

그 以外에

金東鉉氏 所藏의 螺鈿團花禽獸紋鏡(國寶 一四〇號)

湖巖美術館 所藏의 金銅製柄部香爐

慶北 豊基 出土의 金銅製龍頭(國立中央博物館所藏)

咸通六年銘金鼓 等의 것이 統一新羅時代 一般金屬工藝品으로 現在까지 遺存되어 오는 代表的인 것이 아닌가 하며 이와같은 遺物들을 中心해 個個의 것을 대략 소개하면서 考察하여 볼까 한다。

一、香垸、金鼓 銅鏡

香垸(圖版 1)

우선 湖巖美術館 所藏의 金銅製香爐를 살펴보면 길이 四二*cm* 높이 八、八*cm*로서

口緣部가 나팔형으로 크게 밖으로 벌어진 몸체에 別途로 꼬리가 붙어서 香爐臺部쪽으로 꼬부러져 붙어 있다。몸체의 한쪽에는 긴손잡이가 붙어있으나 손잡이 뿌리는 원형이며 이 원형의 뿌리 안에는 地線에서 꽃모양이 솟은 特異한 眼象形이 透彫로 조식되어 있다。긴 손잡이 左右側은 도드라지게 테를 돌리고 꽃은 ㄱ字形으로 밑으로 꼬부리다가 다시 ㄴ字形으로 밖으로 꼬부려서 끝을 넓게 만든다음 그윗面에 꼬리가 위로 뻗친 사자한마리를 올려 놓았다。

또한 香爐의 몸체와는 달리 가는 중간 받침을 구비하고 別途로 향로 받침을 마련하였는데 이 받침의 측면은 꽃모양의 花瓣을 여러 等간격으로 조식배치 하여 손잡이와 향로몸체를 균형있게 받칠수 있는 臺部를 구비하고 있는것이 특이하고 화려한 숫법이다。 이 柄部香爐를 一部에서는 고려시대 香爐로 추정도 하였으나① 전체의 形式이 三國時代의 鐃斗와 기본형으로서 동일한 作風을 보이고 있으나 역시 제작 연대는 九C경인 통일신라시대의 작품으로 보는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본다。

특히 일본의 正倉院 所藏遺物中 이 金銅香爐와 거의 類似한 香爐가 있어 더욱 주목된다。② 正倉院 所藏 香爐(圖版 2)의 名稱은 紫檀金鈿柄香爐로 全長 三九、五cm에 높이가 三、五cm、爐徑 一一cm로 佛具의 一種이며 僧侶가 손에 쥐고 佛前에 獻香하는 用器로 쓰였으며 이와 유사한 것이 正倉院內에는 白銅、赤銅等으로 만든것이 五個나 있다 한다。 특히 이 五개중 이향로는 紫檀과 金鈿으로 된 향로로 香爐上下의 口緣部에는 金銅의 覆輪을 부착하였고 側面에는 花心에 伏彩色을 사용한 水晶을 花卉、鳥、蝶等의 文樣을 彫飾하여 쓰고 있고 香爐內部의 爐內에는 金銅製 爐部를 별도로 만들어 넣고 있다。

특히 香爐의 臺部인 받침에는 二四瓣의 花瓣을 돌리고 있는것이 우리 金銅製 香爐와 거의 同一한 手法을 使用하고 있으며 또한 몸체의 받침대와 柄部에 붙어 있는 꼬리 같은 것도 같은 숫법이다。 그리고 柄部에는 金銀珠玉으로 花紋 珠紋 그리고 唐草鳥紋을 투각으로 彫飾하고 있고 손잡이 끝端에는 蓮花위에 獅子 한마리를 놓고 있는 것도 거의 같은 형태의 숫법을 쓰고 있다。 이 유물을 日本에서는 天平八年(AD七五六)경인 八세기 中期부터 末期까지로 보고 있다。

또한 이와 同一形의 白銅과 赤銅製의 香爐가 所藏되어 있다한다면 우리의 金銅香爐와 直接 對比하여 볼때 우리의 香爐연대도 九C경보다 좀더 앞설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한다。

특히 三國時代 이래 자루가 긴 향로를 그림이나 실물로서 볼 수 있다 한다면 年代를 올려서 보는데도 無理가 아니라 生覺도 된다。

咸通六年銘金鼓(圖版 3)

이 金鼓는 現在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는 金鼓로 國內에서 오직 유일한 統一新羅時代의 것이다。

金鼓의 表徑은 三一、五cm에 側幅이 一〇、五cm에 달하며 이 金鼓의 形態가 高麗時代 金鼓의 規範이 되고 또한 이러한 형식이 延長된 것이 아닌가 한다。

金鼓의 表面에는 굵고 가는줄을 번갈아 가면서 同心圓을 表面에 裝飾하면서 다른 장식무늬가 없는것이 이 金鼓의 特色이라 할 수 있다。

金鼓의 側面에는 특히 두드러지게 太線의 줄을 쳐서 左右로 나누고 그 위에 三개의 고리를 同鑄로 하여 구비하고 있다。 이 고리 역시 간소하면서도 경고하게 하였고、側面의 太線을 中心한 한쪽면에

「咸通陸歲 乙酉二月十二日成」의 銘文이 左書로 陽鑄되어 있어 製作年代와 絕對年代를 明白하고 確實하게 한 統一新羅時代의 金鼓이다。

특히 그다지 크지는 않지만 소박하고 장중한 멋을 풍기는 古格의 것으로 「咸通陸歲 乙酉二月十二日成」에서 咸通陸歲는 咸通六年에 해당되며、그 六年은、乙酉이고 新羅 景文王 五年인 AD八六五年 二月 十二日에 鑄成하였다는 것으로 이미 九C중엽에 이와같은 古格의 金鼓가 제작되었음을 증명하는 한例라고 볼수있다。 또한 高麗時代에 나타나는 資福寺金鼓(慶熙大所藏)、瓊山寺金鼓(國立中央博物館 所藏)、大定一九年銘金鼓、重興寺金鼓(湖巖美術館 所藏) 壬子銘玉泉寺金鼓(慶南 固城) 景禪寺金鼓(車明浩 所藏) 蒲溪寺金鼓(梨花女子大 所藏) 貞祐五年銘金鼓(延世大 所藏)等에서 보이는 형태는 역시 咸通六年銘에서 보이는 樣式과 形態를 기본으로 하여 약간씩 變化를 주면서 변모발전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또한 一九七九年 四月부터 一九八〇年 七月까지 文化財管理局 文化財硏究所에서 實施한 感恩寺址發掘에서 至正一一年辛卯銘飯子(圖版4)가 出土된 바 있는데、이 飯子에는 約六八字의 銘文이 刻記되어 있는바、이

銘文內容에서 注目되는 사실을 밝힐수 있다고 본다。

飯子 即 金鼓의 크기는 表徑 三二、五cm이고 側幅이 六、五cm이며 裏面의 內徑이 二八cm이고 이 內徑을 중심한 周圍의 鼓面에 約 六八字의 銘文이 刻記 周廻하여 있는바、그 內容은、

至正十一年 辛卯 十二月初三日
鷄林府地 感恩寺飯子入重 三十三斤
住持大師[東][印]□代 飯子小鐘 禁口
木乙造成 爲[呼]□ 叱段倭賊人木
亦 同年四月初十一日 右物[芝]乙
偸[取]持去爲良在乙造成

으로 되어 있는바、이 銘文中에서 至正十一年은 一三五一年 忠定王三年에 恭愍王一年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 至正十一年보다 중요한 것은 倭賊들에 의해 本來感恩寺의 여러가지 器物이 약탈되고 파손 또는 훼손되었음을 알수있고 이들 倭賊들의 약탈에 다시 飯子등 여러가지를 만들어 구비하였다는 것을 보더라도 과거부터 오랜동안 感恩寺에 상당한 器物들이 遺存 또는 傳來되며 왔었음을 짐작케하며 이들 傳來品中에는 優秀한 統一新羅時代金屬工藝品들도 있었다고 본다。그것은 感恩寺石塔에서 出土된 舍利藏嚴具에서도 증명되는 사실로 볼때 充分한 可能性이 있다고 사료되며 이와같은 것들이 고려때 이르러 倭寇들에 의해 소진되거나 약탈되어 傳來치 않고 있다는 것 뿐이라 할 수 있다。

이 飯子以外에 같이 出土된 높이 二七、五cm 底徑 一四、七 上徑 一〇、三×八、六cm의 金銅製風鐸에서도 統一新羅時代金屬工藝品의 優秀한 技法을 엿볼 수 있는바、이 風鐸은 비록 高麗時代의 것으로 推定은 하고 있으나 風鐸에서 보이는 樣式과 形態에서는 統一新羅時代 梵鐘들에서 나타나는 모든것을 充實히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即 그것은 四個所 乳廊과 九乳의 配置法 그리고 撞座의 배치에서 보이는 蓮花紋의 彫飾法등은 거의 新羅梵鐘의 蓮花撞座와 同一形態이고 鍾口의 四稜처리는 奉德寺神鐘의 八稜處理와 같게 稜形處理로 한점이라 할 것이다。이런 類例로 볼때 感恩寺에는 高麗末까지도 상당량의 新羅遺品이 전래되어 왔던 것이 아닌가 추측된다。

銅鏡

우리의 역사상 금속기의 사용은 靑銅期時代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생산과 기술의 발달에 따라서 그 재료 역시 金 銀 銅 鐵 等에 이어서 사용되어 왔고、또한 各時代的인 제작기술의 향상에 따라 日常用品에도 상당한 수준의 器物과 장식품들이 나타났다고 본다。

이런 중에서도 銅鏡과 各 器皿品은 장구한 歷史속에서 계속 생산되고 사용되었던 관계로 그 自體의 양식적인 變化과정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형태적 變化도 가져왔던 것이라 본다。

아울러 이와같은 양식과 형태의 變化과정에 따라 各時代의 것을 推察하게도 된다。特히 銅鏡은 金屬器를 사용하기 시작한 靑銅期時代부터 이미 高度의 技術을 使用하여 정교한 銅鏡을 製作使用하여 왔다。그러나 三國이 鼎立한 古墳時代부터는 어떠한 연유에서인지는 모르나 銅鏡의 發見例가 그렇게 흔하지 않은 실정이며 發見出土되었다 하더라도 中國에서 製作 또는 傳來된 銅鏡들이 약간씩 나타나고 있는 상태이다。

고도의 기술을 사용하였던 靑銅期時代의 銅鏡이 갑자기 중단되고 中國製銅鏡이나 模倣製銅鏡이 나타나는 연유를 현금까지 확실하게 구명치 못하고 있고 또한 정교한 우리의 銅鏡이 製作중단된 까닭을 알수없는 상태이다。

그리고 이 시기의 우리가 제작사용한 銅鏡의 變遷과정 역시 追究할만한 유물이 없다는 것이다。단지 국내 몇몇 곳에서 出土된 例가 있고 또한 時代가 몹시 떨어져 統一新羅時代에 있어 舍利藏嚴具의 하나로 발견된 例가 몇개 있고 雁鴨池 發掘등에서 出土된 例가 있을 뿐이다。다시 말하여 三國時代부터 統一新羅時代까지 이르는 오랜歷史동안 銅鏡의 製作은 단절된 상태였다。그러나 後代인 高麗에 와서는 급격히 銅鏡製作使用이 증가되어 상당한 盛況을 이루는데 이것 또한 그 연유를 究明할

까닭을 찾기 어려운 실정이라 본다。

한편 中國大陸은 戰國時代부터 일상용품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銅鏡은 素鏡 純地文鏡 四葉文鏡 山字文鏡 菱形文鏡 S字狀龍文鏡 獸文鏡 連弧文鏡을 비롯해 多樣한 形式의 銅鏡이 발전되고 이를 기본으로 하여 奏、漢 魏普、五胡、南北朝 隋 唐 五代 宋 遼 金 元、明時代 이르기 까지 各王朝와 各時代의 양식과 형태에 특징을 구비하면서 발전사용되었으나 우리의 銅鏡은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三國서부터 통일신라時代까지 발전보다는 단절된 것으로 일관되어왔다。이에 對한 이유는 앞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深度있게 연구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아닌가한다。

이 期間동안 國內에 出土發見된 例를 筆者의 수집된 자료에 의해 본다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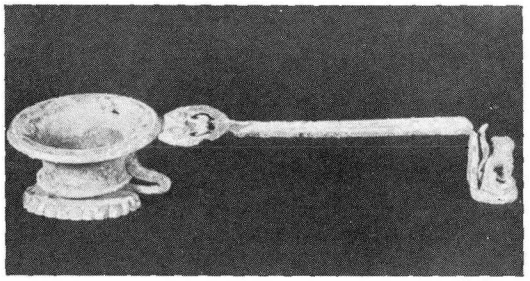
① 慶北 永川漁隱洞古墳出土의 倣製鏡(雁鴨池出土 銅鏡과 類似함)
② 濟州道 山地港出土의 倣製鏡
③ 慶南 昌原市 三東洞 甕棺墓發掘에서 出土된 倣製內杏花鏡(AD3C로 추정)③
④ 金鈴塚出土의 百乳小鏡(直徑 七cm)(圖版 5)
⑤ 晋州地方出土의 變形神獸鏡(直徑 一三、八cm)(圖版 6)
⑥ 慶南 梁山地方出土라고 전하는 變形七乳鏡(直徑 九、四)(圖版 7)
⑦ 慶北 慶州市 皇南里發見이라하는 變形綟形紋鏡(直徑 七、七cm)(圖版 8)
⑧ 慶北 慶州市 九黃洞 皇龍寺址發掘(木塔心礎石出土)의 方格規矩紋鏡(直徑 一六、五cm)(圖版 9)
⑨ 慶北 慶州市 九黃洞 皇龍寺址發見의 素紋鏡(直徑 五、四cm)(圖版 10)
⑩ 慶北 慶州市 九黃洞 皇龍寺址發見의 變形櫛齒紋鏡(直徑 九、〇cm)(圖版 11)
⑪ 益山 彌勒寺址出土 八弧寶相花紋鏡(直徑 二一cm)(圖版 12)
⑫ 慶北 慶州市內出土의 變形斜行櫛齒紋鏡(直徑 一〇、四cm)(圖版 13)
⑬ 佛國寺 釋迦塔出土의 銀製素紋鏡(直徑 七、〇cm)(圖版 14)
⑭ 佛國寺 釋迦塔出土의 素紋鏡片(半徑 八、〇cm)(圖版 15)
⑮ 雁鴨池出土의 荷叶紋鏡(直徑 九、〇cm)(圖版 16)
⑯ 雁鴨池出土의 荷花紋鏡片(直徑 八、二cm)(圖 17)
⑰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 平脫鏡(直徑 一八、二cm)(舊 東垣美術館所藏)(圖版 18)
⑱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 平脫鏡(直徑 一五、三cm)(舊 李元淳氏所藏)(圖版 19)
⑳ 金東鉉氏 所藏의 螺鈿團花禽獸紋鏡(直徑 一八、五cm、國寶 一四〇號)(圖版 20)

等의 것이 古新羅에서 統一新羅時代까지의 銅鏡 全部가 아닌가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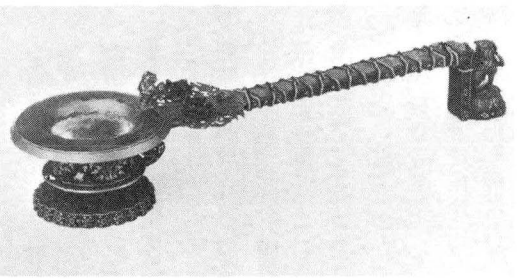
이들 銅鏡以外에 百濟武寧王陵에서 出土된 方格規矩神獸紋鏡(直徑 一七、八cm)、宜子孫獸帶鏡(直徑 二三、二cm)、獸帶鏡(直徑 一八、一cm)等도 있으나 이것은 百濟時代의 것으로 이를 除外한 一九點의 銅鏡中 統一新羅時代에 屬하는 것은 一〇餘點에 불과 하고 殘餘 九點은 漢鏡이나 唐鏡의 倣製鏡들로 古新羅時代에 屬한다고 본다。

特히 統一新羅時代에 屬한다고 보는 銅鏡이나 螺鈿鏡과 平脫鏡들도 樣式과 形態面에서는 역시 中國鏡의 것을 따르고 있다는 것이 注目되는 점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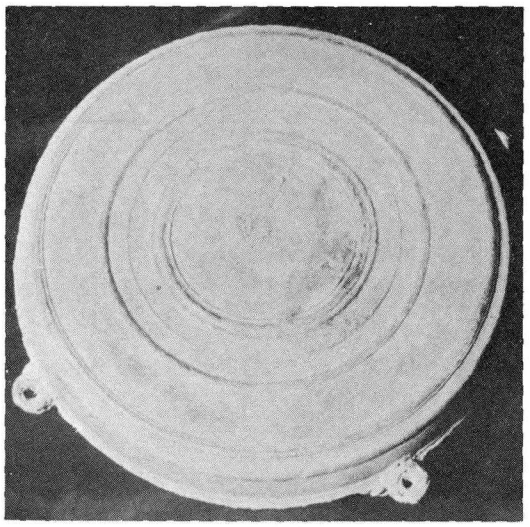
中國의 銅鏡中 唐鏡에서는 葡萄唐草文 海獸文등 페르샤계통의 文樣과 自然에 가깝고 우리生活 주변에서 흔히 볼수 있는 草花、鳥類、草虫、魚類、蝶類 等과 神話故事에 이르기 까지 그 범위를 多樣하게 포함시켜 自由스러운 기풍이 농후하여지고 있고 文樣역시 浮彫의 手法이 강하게 함으로서 사실적인 성격을 뚜렷하게 하였다。이러한 唐鏡系의 倣製鏡들이 新羅時代 銅鏡에서 나타나고 있는 점이다。한편 銅製鏡 以外 화려한 螺鈿鏡과 平脫鏡들도 있는 것으로 보아 倣製鏡 以外에도 特殊材質의 鏡을 製作使用한듯 하며 雁鴨池出土의 荷叶紋鏡과 荷花紋鏡도 注目하여야 될 銅鏡으로 생각되며 이들을 個個別로 要約하여 보면



圖版 1. 香垸(호암미술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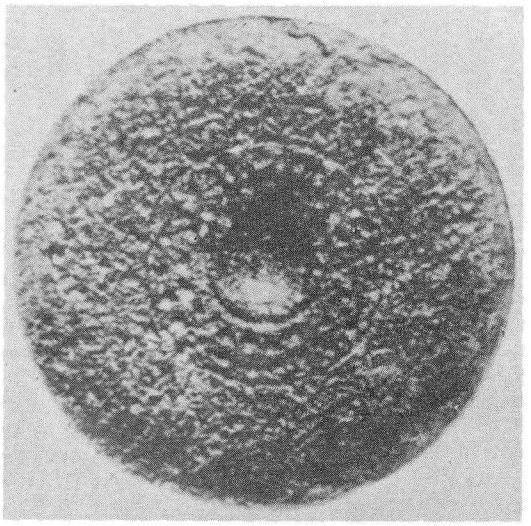


圖版 2. 紫檀鈿柄香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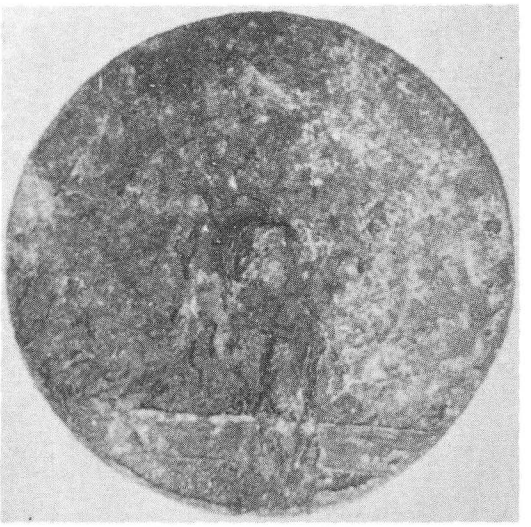


圖版 3. 咸通6年銘金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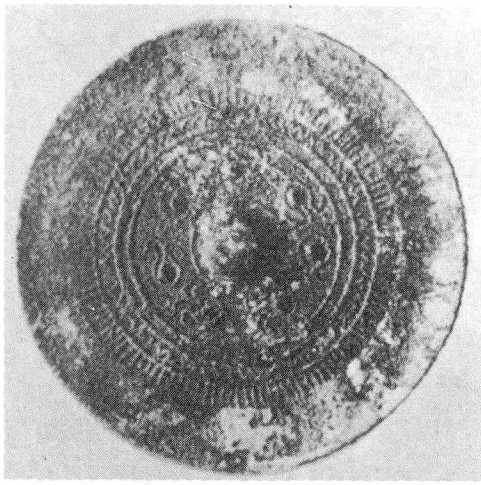
圖版 4. 至正11年辛卯銘鈑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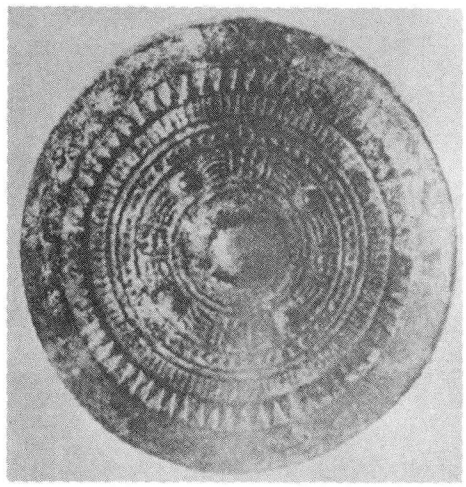
圖版 5. 金鈴塚 出土 百乳小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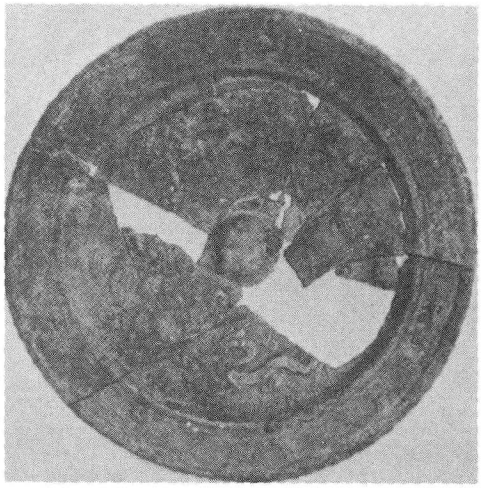
圖版 6. 變形神獸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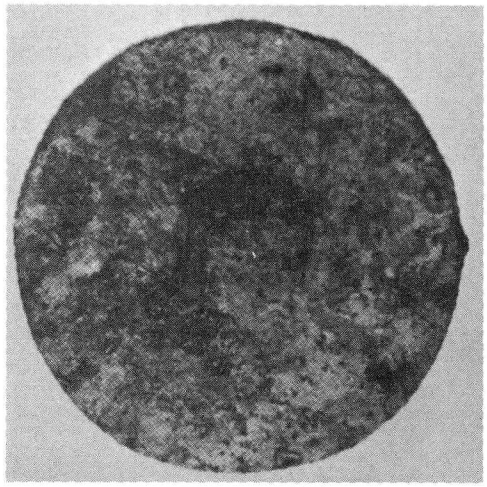
圖版 7. 變形7乳鏡



圖版 8. 變形 緣形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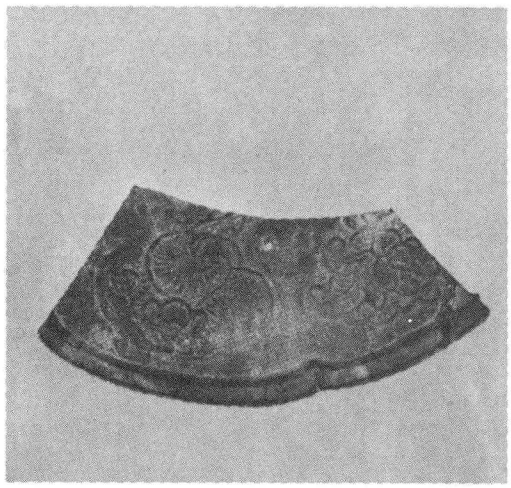


圖版 9. 方格規矩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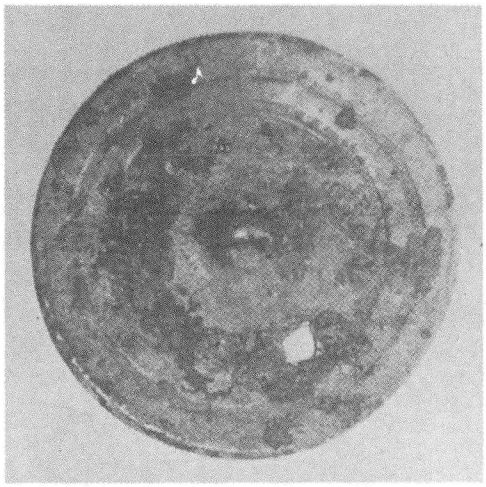


圖版10. 素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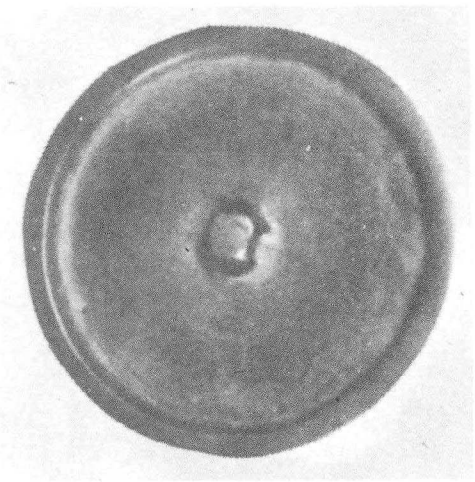
圖版11. 變形木節齒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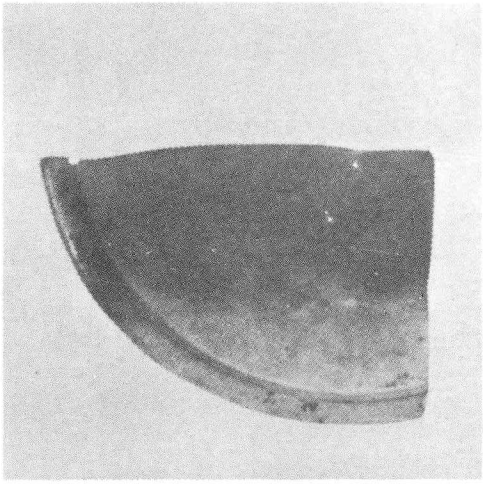
圖版12. 八弧寶相花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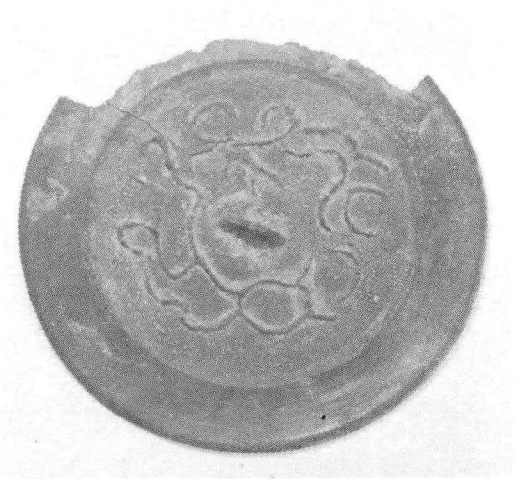
圖版13. 變形 斜行櫛齒紋鏡



圖版14. 銀製素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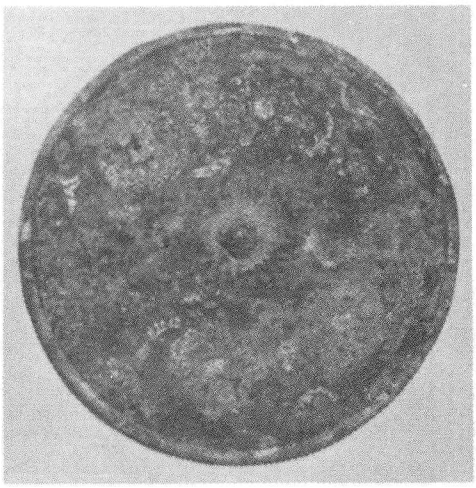


圖版15. 素紋鏡片



圖版16. 雁鴨池出土 荷叶紋鏡

圖版17. 雁鴨池出土 荷花紋鏡片



圖版18. 平脫鏡(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첫째 螺鈿團花禽獸紋鏡(國寶 一四〇號)(圖版 20)④

실측치、直徑 一八、五 *cm*

두께 〇、六 *cm*

出土地는 傳伽倻地方에서 出土되었다고 전함、

鏡의 背面는 鈕을 中心하여 連珠의 螺鈿紋을 장식하여 內區를 설정하였으며 鈕과 連珠螺鈿圓圈紋사이에는 세개의 작은 花形을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外區는 銅製의 圓圈帶로 素文으로 처리하였으며 外區와 內區사이의 全面에는 화려한 牡丹紋을 배치 장식하였고 牡丹紋 左右에는 各各 두마리의 사자와 새를 배치하였다。特히 花形紋의 둘레는 貝殼으로 둘리고 그 속에 琥珀을 嵌入하였으며 紋樣들의 사이 空間에는 두터운 옻칠을 하고 그속에 작은 靑玉을 박아 넣었다。그러나 이 거울에서 주목되는 점은 두터운 옻칠로 생각되는 것이 옻칠이 아닌 樹脂계층의 것으로 생각되며、단순하게 보았던 靑玉 역시 터키石과 La·pisla·zu-li 等의 碎片을 박아 넣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만약에 靑玉이라 보았던 것이 터키石으로 판명된다면 이것은 重要한것으로 國內에서는 産出되지 않은 寶石이며 이것이 어떤 경로로 신라에 까지 渡入되어 螺鈿鏡에 사용되었는지도 판명될 것으로 보며 당시의 교역관계도 동시에 알게 된다고 본다。

또한 지금까지 空間地에 옻칠로 두껍게 입혔다고 보았던 것도 樹脂로 판명된다면 더욱 주목되는 것으로 당시 樹脂使用관계도 밝힐수 있는 좋은 자료라 본다。

이 螺鈿鏡과 製作手法이 同一한것이 日本의 奈良 正倉院의 東大寺獻物帳에 白銅鑄製의 平螺鈿背圓鏡⑤(圖版 21)으로 남아있는데 그 手法이 우리의 것과 동일하며 단지 크기가 直徑 二七、二에 두께가 〇、七六 *cm*로서 크다는 것이다。그리고 平螺鈿背圓鏡에 對하여 究明한바에 의하면 터키石과 La·pisla·zu-li 等의 碎片으로 보고、鏡의 정교한 기법이나、樣式 手法을 이들은 唐의 기법과 手法을 따랐다고 보며 이 白銅製의 平螺鈿背圓鏡을 唐에서 傳하여진 遺品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金銀平脫鏡(圖版 18、19)

이 거울 역시 몇점 안되는 遺物中의 하나로 현재 二점 모두 國立中央博物館에 所藏되어 있다。

平脫鏡이란 金이나 銀板으로 얇게 만들어 鏡背面에 옻칠을 입힌 다음 紋樣部分만의 옻칠을 벗겨내어 장식하는 技法인데 舊 東垣美術館 所藏品과 李元淳氏 所藏品⑥들에 各 一점씩 있던 것이 기증되어 博物館에 所藏된 金板 銀板으로 平脫法을 사용하여 紋樣을 施文 彫飾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平脫法을 사용한 漆器類가 雁鴨池發掘에서 唐草紋과 寶相花紋을 화려하게 施文한 것이 出土된바 있다。(圖版 22) 이런 점으로 볼때 平脫法을 사용한 銅鏡 역시、전하는 수량은 많지 않으나 이미 統一新羅에서는 제작사용하여 왔던 것을 증명하고도 남는다 하겠다。앞으로 이런 類의 銅鏡이 좀더 많이 發見되거나 出土된다면은 당시의 銅鏡발전 과정과 형태 변천등은 명확이 究明되지 않을까 한다。

셋째、雁鴨池出土 荷叶紋鏡과 荷花紋鏡(圖版 16、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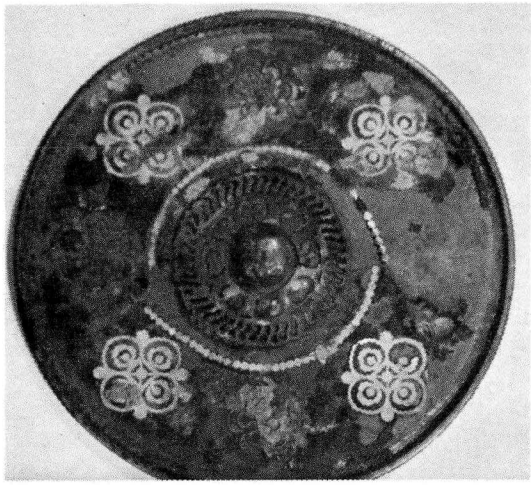
雁鴨池에서 出土된 二點의 統一新羅時代銅鏡은 古墳이나 石塔等에서 發見出土된 어떠한 銅鏡들 보다도 重要한 遺物이라 할 수 있겠다。

지금까지 發見된 銅鏡들은 古墳속에 副葬品이나 石塔속에 舍利藏嚴具의 一種으로 內包되여 있었던 것이나 이 二點의 銅鏡은 실지使用하고、利用되였던 銅鏡이며 아울러 雁鴨池에서 出土된 多量의 金銅藏品 即 一般的 金銅製品들과 同時에 出土된 점이라 할 수 있고 또한 一般的인 金銅製品 중에는 板佛을 비롯해 多量의 佛敎的인 遺物과 실지 一般裝飾에 使用되었던 遺物들이 時代區分에 重要점을 갖고 있고 當時의 金銅製品 硏究에도 貴重한 자료가 된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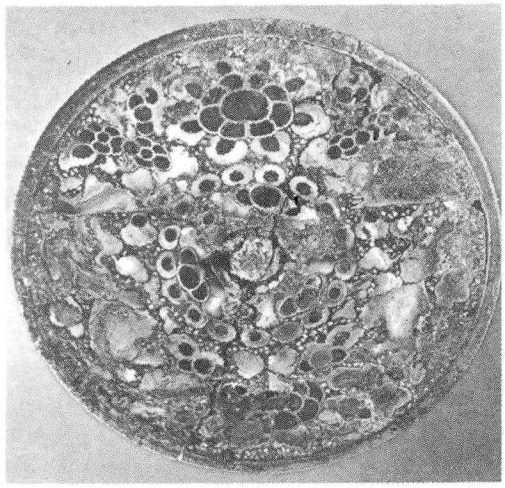
特히 二點의 銅鏡形態와 紋樣等은 檢討하여 본다면

① **荷叶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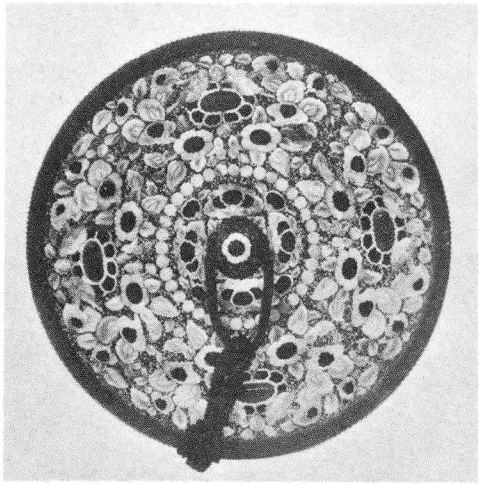
直徑 九、〇 *cm*로서、鏡胎가 몹시 얇고 그다지 크지 않는 銅鏡이나 鏡中央에 簡略한 一個의 弓形鈕을 구비하고 있고 鏡周緣은 넓은 外區를



圖版19. 平脫鏡(국립중앙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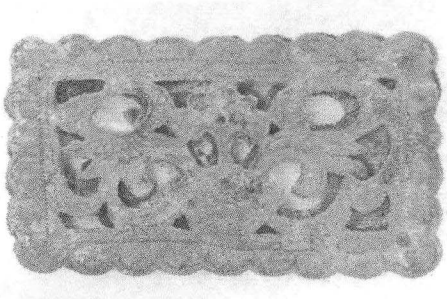


圖版20. 螺鈿團花禽獸紋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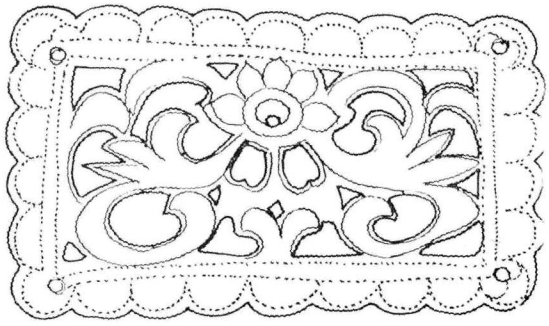


圖版21. 平螺鈿背圓鏡

圖版22. 平脫法을 사용한 漆器類



圖版23－1. 門 및 欄干 裝飾具



圖版23－2. 門 및 欄干 裝飾具

설정하였다。鏡鈕과 外區의 間地에는 草紋인지、唐草紋의 變形인지、分明치 않은 紋樣을 도들紋으로 엉겨서 裝飾하고 있는 바、이와같은 例의 紋樣을 구비한 銅鏡은 現在까지 國內에서 出土된 例가 없는 稀貴한 紋樣의 銅鏡이다。그러나 鏡胎가 몹시 얇고 紋樣이 簡潔하여진 銅鏡形式은 中國에서는 遼代의 銅鏡가운데서 그 例를 보이고 있다。그것은 遼寧地方의 朝陽前窓戶村의⑦ 一個遼墓에서 唐代銅鏡系의 海獸葡萄紋鏡과 함께 出土된 三點의 銅鏡中에서 荷花紋鏡과 荷叶紋鏡이라 볼수 있는 例가 있는바 이와같은 銅鏡들이 雁鴨池出土 荷叶紋鏡과 類似하다는 점이라 할 수 있다。

② 荷花紋鏡片

現長 八、二*cm*의 鏡胎가 몹시 얇고 鏡鈕도 상실된 鏡片으로 全體의 鏡形態를 알수 없는 것이나、殘存한 鏡片에 의하면 紋樣은 약간 도두라진 線으로 七花形紋을 陽刻으로 外區와 鏡鈕 中間 間地에 彫飾하고 있다。이와같은 간략한 紋樣處理의 銅鏡도 앞의 荷叶紋鏡과 같이 出土例가 遼寧地方 朝陽前窓戶村의 遼墓에서 出土된 三點의 銅鏡中에 類似한 荷花紋鏡이 보이고 있는 점이다。

이와같이 雁鴨池에서 出土된 銅鏡은 國內에서는 그 類例를 볼 수 없고 단지 中國의 遼寧地方에서 出土된 例로 볼때、어떠한 상관 관계가 있는지는 풀기 어려운 점이라 할 수 있겠다。

遼의 建國은 西紀 九〇七年이고 新羅로서는 孝恭王 十一年에 해당되며、이때 國內는 後三國이 發興하던 때로 泰封의 弓裔王聖册三年에 해당되며 後百濟甄萱 一六年에 해당된다。이와 같다면 이상의 二點 銅鏡은 統一新羅最末期에 政局이 어지러울 때 統一新羅와 遼와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이에 따라 輸入傳來된 銅鏡인지 아니면 遼鏡을 모방하여 新羅에서 직접 제작사용하였는지는 現在의 입장으로서는 明白히 밝힐 수 없는 상태라 보며、단지 동시에 出土된 여러가지 多量의 金銅製品들과 同時代로 간주하여 統一新羅時代 銅鏡으로 보는 바이다。

넷째 益山彌勒寺址出土 八弧寶花紋鏡(圖版 12)

현재 一二、四*cm*의 길이이나、추정하여 보면 대략 직경이 二一*cm*에 속하는 大形銅鏡이 아니었는가 한다。

銅鏡의 形態는 鈕周緣의 外區을 花瓣과 같이 八弧로 처리하면서 外區를 설정하였고、鏡鈕와 外區의 間地에는 寶相花紋과 같은 花紋을 彫飾하고 있다。이 花紋은 花瓣을 三瓣 또는 四瓣의 花瓣으로 장식되어 있고 밑으로는 草葉 또는 花葉을 아름답게 배치 조식하였다。特히 四瓣으로된 花紋에서는 子房이 보이고 있어 三瓣의 花紋과는 대조되면서 추측한 八弧에는 서로 交代로 三瓣과 四瓣의 花紋을 配置 彫飾한 銅鏡이 아니었던가 한다。이런 양식은 역시 전형적인 中國 唐鏡系에서 볼수 있는 것으로 이 銅鏡 역시 統一新羅의 독특한 樣式과 手法으로 製作되었다기보다 역시流行하였던 倣製鏡의 一種이 아닌가고 생각된다。또한 百濟地域인 이 地域 특히 百濟塔인 彌勒寺址塔의 發掘現場에서 出土되었다는 점이 몹시 주목할 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동경片 역시、통일 이후、新羅의 勢力이 강성하고 융성할때、이 彌勒寺址까지 傳來되어、佛具의 一種으로 使用되었던 것이 아니었는가 한다。

이상의 銅鏡以外에도 武寧王陵出土 銅鏡 三點과 全南 海南郡松旨面月谷里와 全南潭陽郡鳳山面齊月里에서 各各 出土된 乳文鏡系의 銅鏡들이 있는바 이들은 百濟地域에서 百濟土器와 같이 出土된 관계로 여기에서는 銅鏡에 對한 것은 省略하기로 한다。

二、一般金屬製遺物

統一新羅時代의 香垸、禁口(飯子、金鼓)와 銅鏡 以外에 雁鴨池에서 出土된 多量의 金屬製 遺物인 靑銅製、鐵製 等의 武器類、利器類、裝飾類 等과 金製板佛、金銅佛像等을 비롯한 佛敎關係 遺物을 除外한 裝飾用의 金銅製品과 가위、수저、자물쇠、등에 관하여 몇점을 중심으로 簡單히 言及하면서 考察하여 볼까 한다。

① 門 및 欄干裝飾具(圖版 23)

두께 ○、○五㎝에 長 六、一㎝ 幅 三、五㎝의 金銅製草花紋裝飾具로서 各面端에는 四瓣과 九瓣의 花形瓣으로 하고、이 花瓣들의 內緣側에는 同形으로 打押한 點線紋樣等을 돌렸다。또한 點線花瓣紋樣等과 連하여 二重의 點線紋樣等을 長方形으로 돌리고 中央內面에는 忍冬唐草紋樣等을 透彫로 裝飾하고 있는바 透彫의 忍冬唐草紋樣의 上端中央에는 五瓣의 花葉과 子房을 갖춘 花紋을 線刻으로 彫飾한 것은 透彫의 形態와 調和를 이루어 몹시 華麗한 金銅製裝飾具이며 特異한 것은 이 裝飾具裏面에는 金銅製의 裝飾具와는 달리 銅板을 두겹으로 붙여 밑바탕을 하고 있고 裝飾具 四귀에는 圓形의 釘孔이 있어 어떠한 器物에 裝飾具로 付着 시켰던 것 같다。추측컨데 이 金銅製草花紋裝飾具는 雁鴨池주변에 建立하였던 建物의 欄干이나 木製門의 裝飾具로 쓰여졌던 화려한 裝飾用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② 昌枋마무리 裝飾具(圖版 24)

金箔이 뚜렷이 남아 있는 方形의 金銅製透彫寶相花紋 裝飾用具로 앞면은 寶相唐草紋을 透彫로 하였고、아랫쪽 두곳에는 圓形의 釘孔이 있으나 윗면은 ㄱ字形으로 꺾이어、木製部에 密着되게 하였다。특히 透彫의 寶相唐草紋板 밑인 裏面에는 銅板을 깔고 透彫의 紋樣板에서의 紋樣을 明暗處理로 더욱 부각되게 한 手法은 놀랄만한 技法이며、이와같은 透彫의 寶相唐草紋板들로 昌枋이나、副緣의 끝마무리에 장식하였다면 建物의 화려함과 장식성은 當代의 극치를 이루는 장식手法이 아니었는가 한다。

③ 門고리裝飾具(圖版 25)

넓이가 七、九㎝의 透彫로된 金銅製寶相花紋의 門고리 裝飾用具로 中央의 圓孔을 中心하여 透彫로 如意頭紋의 連續變形과 같은 寶相花紋을 裝飾하고 있는바、透彫의 紋樣板 裏面에는 역시 또다른 金屬板을 깔고 있어 紋樣을 돋보이게 하였다。현재 環形의 고리는 缺失되고 없으나 고리板자체는 화려한 透彫의 手法을 갖춘 用具이다。

④ 門고리圓形裝飾具(圖版 25)

徑 一一、二五㎝와、徑 一四㎝의 두개 문고리 장식용구로 그 형태는 圓形의 金銅製透彫寶相花紋을 장식하고 고리 周緣에는 二重帶를 돌리고 그 안에 三二個의 連珠을 等간격으로 배치하였고 內部中央의 四角문고리 구멍을 中心하여 寶相花紋을 變形한 紋樣을 透刻으로 華麗하게 장식 하였으나 앞의 문고리 장식과는 달리 밑板을 깔지 않고 있는 것이 특색이다。二점중 一點은 현재 環形의 문고리를 구비하고 있어 당시의 문의 크기를 짐작케한다。특히 環形고리의 전체 직경이 一三、五㎝에 이르고 고리 자체의 직경은 一、五五㎝의 두께를 갖는 견고한 고리로 볼때 상당한 크기의 문에 장식하였던 문고리가 아닌가 한다。

⑤ 金銅製鬼面門고리(圖版 26)

四點 同一形으로 크기는 一○㎝×八、三㎝ 정도이며 門고리 自體의 鬼面은 浮彫가 뚜렷하고 明暗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彫刻手法이 精巧하게 하였다。鬼面의 입 中央에 촉을 달아 二七個 連珠로 連結된 環形고리를 물고 있는듯한 형식으로 처리 하였다。製作手法은 다른 門고리와는 달리 鑄物로서 製作하고 그위에 金箔을 입혔다。

이와같은 形式의 鬼面門고리는 여러例가 있는바 慶州에서 出土되었다는 金銅鬼面고리 裝飾(慶州國博所藏)、感恩寺址舍利藏置의 獸環、東京博物館 所藏品中 小倉의 기증품중에 보이는 鬼面고리장식、그리고 雙床塚出土의 鬼面裝飾等을 들수 있으며 이와같은 鬼面고리裝飾은 서로 형태는 달라도 거의 鑄物形態를 따르고 있고 또한 辟邪的인 內容이 포함되어 있다고 본다。古墳의 門扇과 建物의 門 또는 다른 部位에 鬼面의

장식과 鬼面瓦를 使用하고 있는 것은 外部로 부터의 邪惡한 것은 쫓고 內部 福을 保護한다는 呪術的인 뜻이 있다고 본다。 이와같은 鬼面이나 鬼面瓦의 사용은 中國의 殷周時代 饕餮文에서 부터 시작되여 戰國時代에 와서는 獸面文으로 變形되었다가 前後兩漢을 통해 성행 하게 되어 전래되다가 六朝를 거쳐 唐時代에 이르러는 石塔과 佛龕 등 여러 곳의 門扇과 建物에 이용되었던 것이 점차 韓半島에도 波及 傳來되여 使用케 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⑨。

⑥ 欄干裝飾具(圖版 27)

이 裝飾具는 雁鴨池에서 모두 一二點이 出土된 것으로 크기는 대략 전장이 九、八五㎝、一三、五㎝×一三、五㎝、八、二五㎝×八、二五㎝、九、二㎝×八、八㎝、一三、八五㎝×一一、七㎝、一二、六㎝×一〇、五㎝、一三、二㎝×一〇、四㎝ 등 各樣各色의 形態로된 金銅製 透彫 寶相唐草紋 裝飾들이다。 形態는 一點을 除外한 나머지 전부가 同一하게 菱形의 마름모꼴로서 中央에 圓孔의 釘孔을 設定하고 그 주변을 寶相唐草紋을 透彫로 섬세하고 화려하게 製作한 裝飾具로서 使用 用途는 추측컨데、建物의 欄干기둥이나 接合部位에 장식하였던 것으로 본다。

⑦ 金銅具帶裝飾(圖版 28)

丁字形、長方形 등 多樣한 형태의 金銅製 裝飾으로 크기는 二二、六㎝×三六、五㎝、二七、一五㎝×七、二㎝、三八、七㎝×七、四㎝、二八、四㎝×七五㎝、二八、一㎝×七、二㎝ 등 各各 다른 크기의 형태이나 裝飾板面에는 線刻 또 押出한 紋樣을 彫飾하고 板內에는 透彫로된 如意頭紋의 變形紋樣으로 彫飾하고、板端面에도 역시 如意頭紋으로 處理하여 端面을 마무리 지었다。 이와같은 裝飾은 建築物의 部材 接合部나 大門의 部材인 接合部에 이구러지거나 흠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하면서도 장식성있고、화려하게 처리한 金銅製板으로 생각되며 그 手法 역시 우수한 裝飾具의 하나로 본다。

⑧ 金製裝飾具(圖版 29)

純金製로서 環形의 것은、現在 徑이 一四、四㎝로 타원형으로 이그러져 있고 殘余裝飾具는 徑 二、二五㎝의 心葉形裝飾具로 形狀은 心葉形에 中央에는 圓孔을 구비하고 그 주변은 花瓣으로 裝飾하였으며 外周는 화염문과 같은 突出紋으로 處理 하였다。 이 裝飾具는 押出方式으로 만들었으며 二〇㎝의 細棒으로 二개를 연결 한 것으로 어떠한 器物에 장식하였던 것 같다。 그리고 現徑이 一四、四㎝의 타원형 金口帶는 斷面이 ∩과 같이 되어 木器 또는 漆器 내지 陶器의 口緣部를 마무리 짓는 데로 사용된듯하며 이런 例는 中國陶磁器의 口緣部에 銀口、또는 金口로 金口帶를 돌려서 마무리 짓는 例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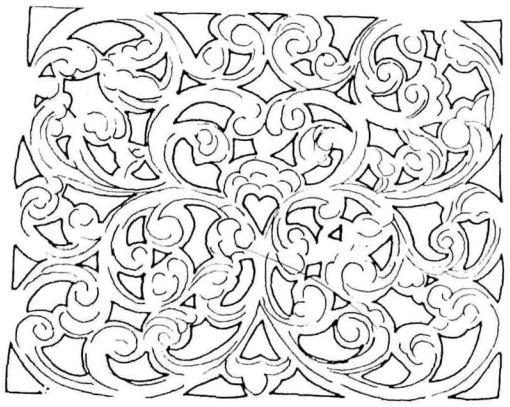
⑨ 金銅製발걸이 裝飾具(圖版 30)

발같은 것을 걸어 놓을 수 있도록 된 것으로 上端은 楕圓形의 고리를 부착시키고 아랫쪽의 원체는 U字形으로 되어 걸어 올려 놓을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발걸이 끝에는 작은 연봉장식을 하였으며 이 장식이 있는 部分은 아주 가늘고 세련되게 細工手法을 사용하였다。 특히 개중에는 幅이 얇은 稜形의 板을 鍛鍊시켜 고리部分을 말아서 고리를 움직이게 하였고 걸이개 部分 끝단에는 역시 연봉으로 장식하였다。 그러나 이와는 다른 걸이는 모두 鑄物로서 되어 있는것이 特異하다。

⑩ 金銅製寶相花紋벽걸이裝飾具(圖版 31)

金銅製의 벽걸이로서 釣針같은 形態로 되었으며 先端部는 同一하게 寶珠形의 蓮봉으로 되어 있으며 四瓣의 蓮瓣을 刻出시켰다。 木製部位나 벽면에 押入 또는 打入시킬수 있도록 方形 또 圓形으로된 촉이 달려있다。 또한 벽걸이의 밑바탕이 되는 寶相花紋板을 一式으로 하여 사용케 되어 있는바 花紋板은 대략 八葉形의 모양으로 되고 中央에는 方形 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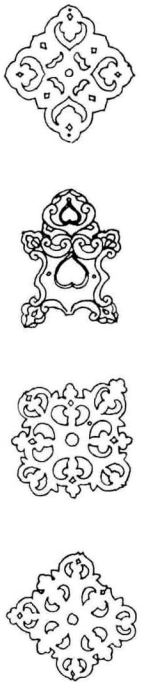
圖版24－1. 昌枋마무리 裝飾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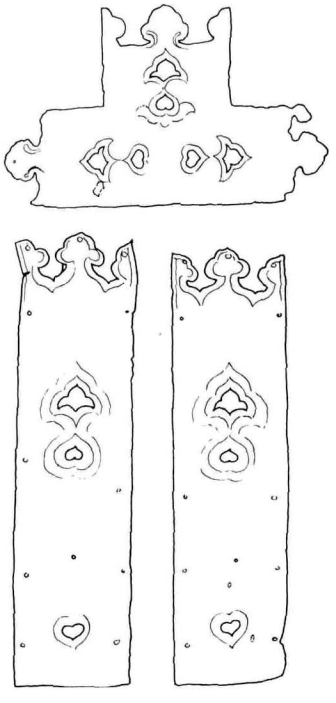
圖版24－2. 昌枋마무리 裝飾具

圖版25. 門고리 圓形裝飾具

圖版26. 金銅製 鬼面門고리



圖版27。欄干裝飾具



圖版28。金銅具帶裝飾

은 圓形의 釘孔이 뚫여 있고 이 釘孔을 中心하여 周緣에는 線刻으로 寶相花紋을 彫飾하였으며 花紋의 間地마다에는 細工의 打出 連珠紋을 滿開하게 彫飾하고 있어 花板自體를 華麗하게 細工하였다。 이와같은 金銅製벽걸이 裝飾具는 대략 크기가 五㎝×三、五㎝ 두께 ○、八㎝ 또는 八、二㎝에 두께 ○、一㎝ 등 多樣하다。

⑪ 金銅製龍頭裝飾(圖版 32)

最長 一六㎝、高 一○㎝、幅 六㎝의 龍頭裝飾具는 찬란한 金色으로 鍍金되어 있으며 一角의 뿔은 이마에서 부터 뒤로 힘있게 젖혀지고 半開한 龍口에 犬齒와 같은 송곳齒牙가 左右上下 힘있게 뻗어 突出되어 있으며 두눈은 부릅뜬 상태이고 또한 兩耳 역시 힘있게 뒤로 突起되어 있다。 턱밑의 수염이 턱을 받혀주고 있고 비늘을 陰刻시켜 놓았다。 兩耳 밑 부분의 左右側에는 他物에 揷入附着 固定시킬수 있도록 釘孔이 各各 뚫어져 있다。

이와같은 龍頭裝飾은 統一新羅時代의 것으로는 梵鐘의 龍鈕에 장식된 龍頭以外에는 그렇게 흔하지 않고 雁鴨池에서 出土된 二點 金銅製裝飾 以外에 一九七六年 慶北榮州邑內에서 土木工事중에 발견된 金銅製龍頭幢竿飾(높이 六五、五㎝ 現在 國立慶州博物館藏)이 있을 뿐이다。

⑫ 金銅製鳳凰形裝飾具(圖版 33)

高 一○、七㎝、날개폭 一○、二㎝、에 金銅板으로된 날개를 구비한 봉황형 장식으로 봉황의 몸체는 날개와 달리 鑄物로서 제작 되어 있고 別途로 金銅板의 날개를 제작 조립한 것이 특이하며 이 날개는 忍冬紋이 押捺되어 있으며 움직이게 되어 있다。 또한 봉황 머리에는 뿔이 뒤로 젖혀지고 있고 부리에는 環形의 고리를 물고 있으며 앞가슴에는 石碑의 龜趺에서 보이는 龍頭의 목부분과 같이 橫帶의 鱗角 九條를 나타내고 있으며 兩足下에는 臺座를 구비하고 있어 다른 기물에 附着裝飾하였던 것으로 본다。 또한 外觀上으로는 石塔이나 浮屠等과 다른 造形物에서 보이는 迦陵頻迦와 같은 形態로된 鳳凰形裝飾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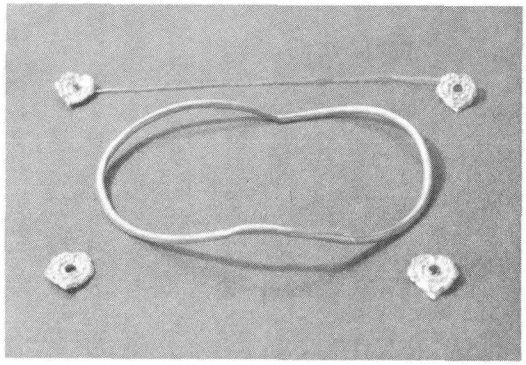
⑬ 金銅製蓮봉裝飾具(圖版 34)

高 一一、九㎝、幅 五、五㎝의 金銅製蓮봉이 안압지에서 二四점이나 出土된 것으로 대략 형태는 複瓣仰蓮이 六점、單瓣重葉仰蓮이 八점、單瓣重葉仰蓮에 端部가 촉이 있는 것이 五점、單瓣仰蓮의 것이 五점으로 各己 蓮봉에 있어 蓮瓣의 紋樣이 若干씩 다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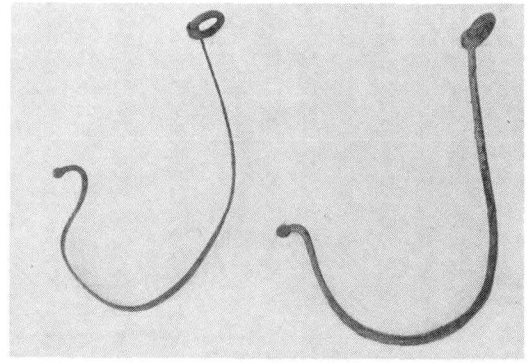
特히 깃봉裝飾用의 것으로 추측되는 蓮봉은 全體가 仰蓮으로 하고 목부분에 와서는 二條의 太線帶로 돌렸고 底部에서는 兩側도 퍼져서 중앙이 彎曲되게 하였고 兩側 端部에는 釘孔이 뚫여있다。 彎曲된 中央內部쪽에는 길다란 촉이 달려 있어 他物에 꽂아 못을 사용한 흔적이 보이고 있다。 이들 二四點의 蓮봉 장식具들도 多量으로 出土된 점으로 보아 建造物의 欄干의 돌란대 위에 꽂거나 釘으로 고정시켜 裝飾具로 사용된듯 하다。

⑭ 金銅製귀꽂裝飾具(圖版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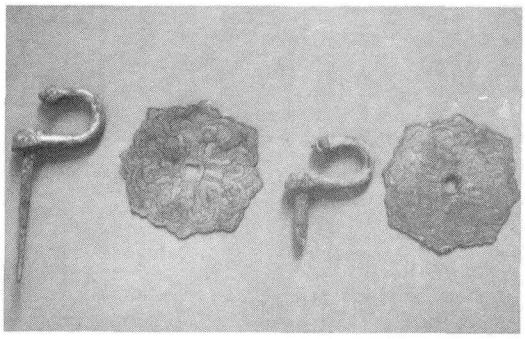
高 七、八五㎝ 폭 五、九㎝、두께 ○、五㎝、高 七、七㎝ 폭 五、八㎝、두께 ○、三五㎝、高 八、四㎝ 폭 七、二㎝ 두께 ○、三㎝ 등 各己 다른 높이와 폭 두께를 갖고 있는 金銅製귀꽂裝飾具들로 一一點이나 出土 되었다。 귀꽂의 형태는 「ㄴ」字로 되어 있으며 머리 부분을 中心으로 대칭되게 忍冬紋을 조각하였으며 귀꽂의 목 중앙에 金銅製의 고리를 만들어 附着시켰다。 또한 귀꽂의 뒷면에는 釘孔이 三個씩 있어 一定한곳에 固定시켰던 것 같으며 製造形式은 모두 鑄物로서 되어 있는 것이 特色이다。 이와같은 귀꽂의 使用 用途는 추측컨데 佛壇인 須彌壇 周圍에 裝飾用으로 使用된듯 하며 귀꽂의 목부분에 附着된 꼬리에는 귀꽂과 귀꽂을 연결하는 金띠나 金銅製의 장식용 띠를 連結사용하였던 고리로 본다。



圖版29. 金製 裝飾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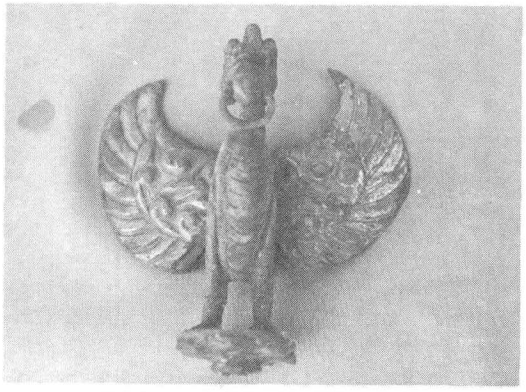


圖版30. 金銅製 발걸이 裝飾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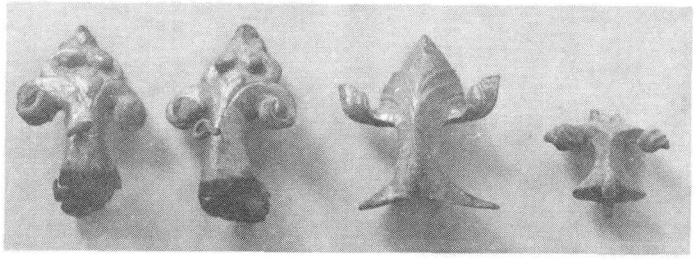
圖版31. 金銅製 寶相花紋 벽걸이 裝飾具

圖版32. 金銅製 龍頭裝飾



圖版33. 金銅製 鳳凰形 裝飾具

圖版34. 金銅製 蓮봉裝飾具



圖版35. 金銅製 귀꽂 裝飾具

⑮ 金銅製 가위(圖版 36)

안압지에서 출토된 가위는 상당수에 달하며 完全한 것만도 三六點에 이른다。이와같은 다량의 가위는 대략 金銅製와 鐵製、鉛製等으로 區分되나 여기에서는 오직 유일하고 秀作이며 注目되는 金銅製 가위 一點에 對하여서만 略述하고자 한다。

이 金銅製가위는 三六個의 가위중 중요하고 注目되는 것으로 그 형태는 全長이 二五、五*cm*로서 두개의 鋏身은 X字形으로 交叉시켜 交叉點에 고정못을 박아 가위를 만들었다。각 가위의 刀部는 짧으며 주위로 半圓形盤으로 하여 닫으면 圓形盤이 되도록 하였다。또한 가위의 손잡이는 길고 몸이 對稱的인 唐草紋狀態로 造成되었으며 손잡이 몸체 表面에는 流麗한 細線의 唐草紋을 施文하였으며 細線의 唐草紋들 間地에는 세잔한 連珠紋을 打點한듯 가득히 장식하여 唐草紋을 입체적으로 더욱 浮刻시켰다。

이 金銅製가위와 類似한 것은 日本 奈良 正倉院에 同一한 樣式의 것이 있어 이것 역시 統一新羅에서 傳來된 것이 아닌가한다。가위의 用途는 역시 짧은 刀部의 형태와 圓形盤등으로 모아 燭臺用으로 火芯을 자르는 가위로 쓰여졌던 것으로 본다。그 以外의 가위들중 鉛製가위에 對하여는 그 용도가 不明하여 次後에 再次 略述考證하고자 한다。

⑯ 鐵製자물쇠(圖版 37)

鐵製로된 자물쇠 四점이 안압지에서 出土되었으나 그 中 길이가 三二、二*cm*와 二四、七*cm*의 자물쇠가 代表的이며 이 二點 모두 형태가 ㄷ字形으로 되어 있으며 몸통에는 구멍이 뚫려 있고 이 中 三二、二*cm* 크기의 자물쇠 몸통옆에는 「思正堂北宜門」「合穴開鎰」「長口」이라는 銘文이 있어 자물쇠가 사용되었던 門名까지 확실히 밝혀 雁鴨池를 中心한 建造物등의 門名을 알수 있는데도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雁鴨池 出土의 一般容器中 몇점의 金屬工藝品을 소개 하였으나 이것들 이외에도 靑銅製匙等을 비롯한 귀중하고 우수한 수많은 자료는 後日에 再論토록하며 여기에서는 省略하고자 한다。

三、結 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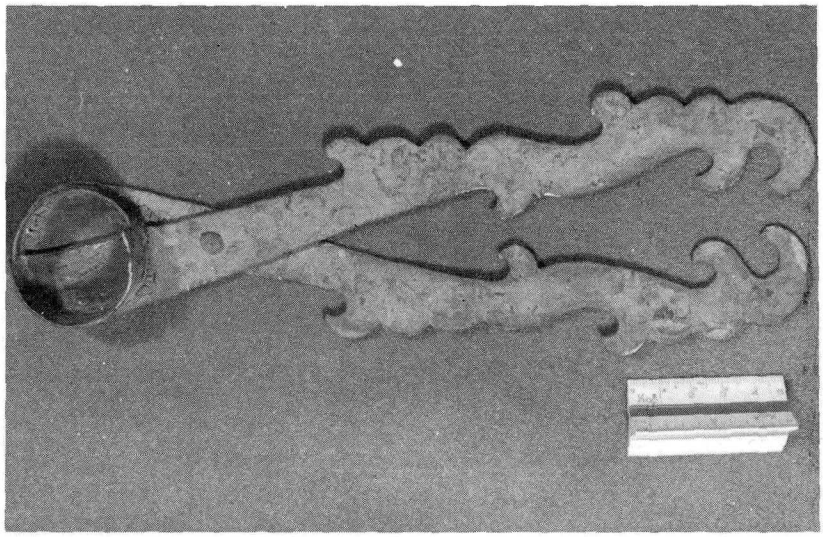
이상으로 대략 統一新羅時代 金屬工藝品中 香垸과 金鼓(禁口 飯子)、銅鏡 그리고 一般金屬工藝品을 中心하여 살펴보았다。國內에 남아있는 몇점안되는 遺物들을 기준하여 당시의 工藝技術을 論한다는 것은 無理라고 生覺되나 多幸히도 重要한 몇點의 遺物이 있어 大略이나마 推理하고 技法과 樣式形態等을 究明할수 있었다고 본다。

香垸 香爐에 있어서는 오직 유일하게 남아 있는 湖巖美術館 所藏의 金銅香爐는 그 形態에 있어서도 特異하고 重要한 것이나 사용면에 있어서도 귀중한 것이였음을 알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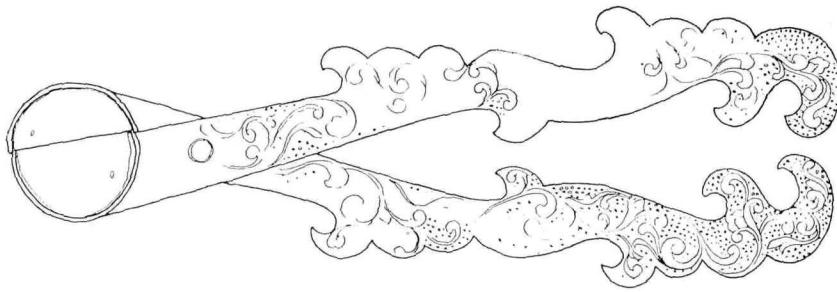
향로는 대략 佛前에 固定되게 놓는 형태의 香爐들이 從前의 것이 었으나 이 香爐는 柄部 即 손잡이가 附着되어 佛前에서 儀式에 따라 直接 손에 들고 周廻하면서 사용될수 있는 燻爐의 性格을 띠고 있어 이점이 중요하거니와 形態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볼수 없었던 特異하고 화려한 것으로 당시의 香爐를 짐작케한다。아울러 여러점이 遺傳되지는 않으나 당시에 있어서는 分明히 많은 량의 香爐를 제조 사용되었던 것만은 사실이라 본다。

또한 이 香爐의 柄部를 제거하여 香爐몸체만을 본다면 그 形態는 高麗때 향로의 구연부가 나팔형으로 된 表恩寺 향로(AD 一一七七)등의 형태가 기본적으로 類似하다고 보며 이 형태가 고려시대 유행하였던 향로의 規範이 되었지 않았는가 생각된다。한편 日本 奈良 正倉院에 있는 향로들도 同一形態로서 신라에서부터 영향을 傳授치 않았는가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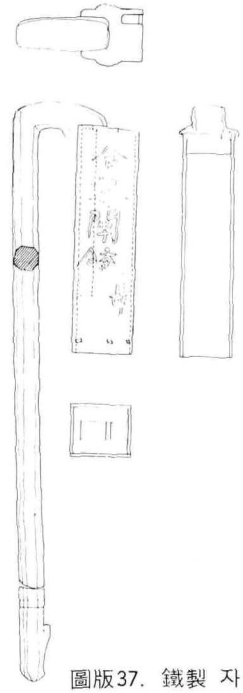
金鼓에 있어서는 咸通六年銘金鼓가 유일한 것으로 이 금고의 형태가



圖版36－1.
金銅製 가위



圖版36－2.
金銅製 가위



圖版37. 鐵製 자물쇠

고려때의 大定一九年銘金鼓、貞祐五年銘金鼓、蒲溪寺金鼓등의 기본바탕이 되었다고 본다。

장중 소박한 면이나 주조기법상의 여러가지 특징이 고려때와 같이 번잡하고 사치스럽지 않은 것으로 볼때 역시 당시의 紋樣處理와 형태등이 一步앞서고 있었음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

不幸하게도 여러점의 金鼓가 遺存치 않고 咸通六年銘金鼓만이 있어 당시의 金鼓 형태와 고려때의 金鼓형태와의 變遷過程을 밝힐수 없는 것이 未洽한 점이라 본다。

그리고 銅鏡에 있어서도 同一한 實情이나 靑銅器時代까지 高度로 發達되어 使用되어 왔던 多鈕細紋鏡의 技法과 手法이 어떠한 연유에서 인지는 알수 없으나 三國時代와 統一新羅時代에 이르기 까지 傳來되지 않고 단절되어 버렸고 주로 中國鏡의 輸入品이나 倣製鏡을 製作使用되어 왔다는 것이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바와 같이 몇점 안되는 銅鏡自體도 遺蹟址와 古墳等에서 出土 되었을 뿐이다。

이와같이 稀少한 實情중에서도 國寶 一四〇號로 指定된 螺鈿團花禽獸紋鏡과 國立中央博物館 所藏의 平脫鏡 二點의 遺存은 當時의 銅鏡형태를 증명하는 貴重한 가치와 重要性을 갖는 것으로 靑銅製의 倣製鏡以外에 直接 新羅人들이 螺鈿法과 漆器에 平脫法을 利用한 銅鏡製作에 高度의 技法과 手法을 발휘하였음을 증명하고 있다 하겠다。平脫法을 발휘한 器物이 雁鴨池出土品中 唐草紋漆器片에서 이미 보이고 있어 注目되고 있다。

한편 같이 出土된 일반금속공예품은 古墳等에서 出土된것 보다 量的으로나 技法上으로나 우수하며 樣式과 形態的으로도 儀式用이 아닌 실지 사용된 것으로 일보 앞서고 있고 세련되어 있다는 점이다。이와같은 유물들이 數量的으로도 多量으로 傳來되지 않아 多角的인 면으로 공예품의 多樣性과 形態、技法、手法등의 變化過程을 검토 究明할 資料가 희소함을 인식하면서도 한편 梵鐘등의 佛具에서 나타나는 鑄造技術과 紋樣彫飾 또한 舍利藏嚴具等에서 보이는 섬세하고 정교한 고도의 手法 그리고 金銅佛像등에서 보이는 彫刻上의 流麗한 線과 金箔處理 및 鑄造技術등은 統一新羅時代 金屬工藝技術의 수준을 증명하고도 남음이 있다고 본다。한편 당시의 공예품에서 보이는 고분出土의 鬼面장식등에 對하여는 더욱 신중을 기하여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鬼面장식은 古墳의 門扇뿐만 아니라 實在의 建物門扇에서도 사용되었으며 佛敎的인 장식성보다는 土俗信仰에서 오는 辟邪的인 뜻이 더욱 강하게 작용하여 이와같은 장식을 사용하였다고 보며 固有한 民俗信仰과 佛敎와의 교합관계도 재검토하여 공예품의 구명에도 이용되어야 될 줄로 생각된다。

그리고 海外 即 日本 東京國立博物藏으로된 舊小倉의 유물중 통일신라시대 금속공예품에 對하여는 筆者가 직접 식견치 못해 이것에서 省略하고 次後에 別途로 검토 論하기로 하면서 不足한 拙稿를 끝맺고자 한다。

〔註〕

① 韓國美術全集 八輯(同和出版社刊)에서는 高麗時代로 보고 있고、秦弘燮著 一志社刊 韓國金屬工藝에서는 統一新羅時代로 보고 있다。

② 一九八二年 奈良國立博物館刊 正倉院展 圖錄參考、第一法規社刊 文化財講座 日本의 美術(一〇)、工藝篇參考

③ 釜山史學第八輯、「三東洞甕棺墓의 編年」에서 安春培氏는 出土된 倣製鏡을 AD3C前半까지로 보고 있음。

④ 韓國美術全集二輯(同和出版社刊)에서는 단순한 靑玉으로 보고 있고 螺鈿사이를 메꾼 부분을 漆面으로 보고 있다。

⑤ 一九七九年 奈良國立博物館刊 正倉院展 目錄解說에서는 平脫鏡으로보고 靑石을 터키石으로 漆面을 樹脂로 보고 있음。

⑥ 韓國精神文化硏究院刊 硏究論叢 八三—一三「韓國의 銅鏡」(李蘭暎著)參照。

⑦ 遼寧朝陽前窓戶村遼墓、「文物」一九八〇—一二。

⑧ 前揭「文物」一九八〇—一二 參照。

⑨ 新樹社刊 小杉一雄著。中國佛敎美術史의 硏究 第四章 參照。